역사성과 문학성 조화 속에 태어난 민중적 영웅상

《홍범도》 (전10권) 이동순 지음 | 국학자료원 | 각권 170쪽 내외 | 값 각권 9,000원

20여 년의 남모를 조바심을 뚫고 한 편의 민족서사시가 세상에 나왔다.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영남대학교 국문학부 이동순(53) 교수가 쓴 《홍범도》가 그것이다. 양으로 보자면 5부작 10권으로 2,000쪽이 넘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왜곡되고 축소된 민중의 영웅 홍범도 장군이 역사성의 뼈대 위에 문학성을 입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동순 교수와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의 작업과정과 의미를 들어보았다.

〉 요즘 젊은이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그렇게 익숙한 인물이 아니다. 홍범도가 우리 근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차지하는가 말해 달라.

홍범도는 구한말 일제침략기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맞서 싸웠던 의병장 중의 한 명이다. 게다가 대부분 양반 유생출신의 의병장이었음에 비해 홍범도 장군은 백두산 자락인 갑산 일대에서 활동하던 포수 출신으로 경상도 영해의 신돌석 장군과 더불어 매우 드문 서민 출신 의병장이다. 자신과 온 가족의 목숨까지 국권수호와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대열에 바쳤던 가장 유일한 분인 것이다. 반제국주의 일선에서 포수라는 직업을 통하여 일제의 속성을 간파하여 차츰 민중혁명의 단계로 발전되어 갔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홍범도 장군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범석 장군의 자서전 《우등불》 출간 이후 홍장군에 대한 소외와 왜곡이 더 심각해졌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서민출신 의병장이었으므로 실제 기록이 많지 않다. 뿐만 아니라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서 살다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기록이나 증언은 러시아측 자료에서 훨씬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홍 장군의 격렬한 항일투쟁과 혁명의식을 그들의 체제가 추구하는 가치관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김좌진 장군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록이나 공적이 의도적으로 배척됐다. 그 배척의 이유는 홍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부치는 방법이었고, 이러한 관점은 이범석의 자서전이 그 첫 발단이 아닌가 한다.

〉 홍범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의 조부께서는 일제침략기 초반 경상북도 김천 일대에서 항일운동을 하시다 일경에 체포되어 고문받다 돌아가셨다. 이른바 〈의용단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자랑스런 조부님의 후예로서 민족과 문학을 위해 해야 할 사업의 몫이 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 그러한 관심과 추구가 결국 홍범도라는 항일투사의 존재성에 대한 발견과 부각으로 이어졌다.

〉 이 작품은 원래 1985년 〈창작과비평〉지에 일부 연재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계속 연재되지 못하고 중단된 이유는?

당시 창비의 이시영 주간이 민족서사시 〈홍범도〉 집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가지고 지면을 주었다. 그리고 연재를 마치면 도합 3권의 전작시집으로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홍범도 관련 자료의 부족, 출생지조차 제대로 확인되어 있지 않은 국내자료의 불안스러움, 계속 이어지는 러시아측 자료의 새로운 발굴 등이 일단 집필의 중단을 심적으로 압박해 왔다. 그러한 일시적 중단이 15년 넘도록 장구한 세월을 중단상태로 몰아갔다.

"....불굴의 투지와 적극성일 것이다....요즘 세대들은 어떤 험한 역경이나 악조건을 만났을 때 쉽게 지치거나 굴복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가열찬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결코 패배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지 말아라.... 퇴폐주의나 냉소적 삶의 태도는 더더욱 위험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일깨워준다...."

〉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흥미로웠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자료수집은 우선 국내의 관련 학자들, 한국사 전공의 학자들 중에서 홍범도 장군 관련 자료를 수집한 경험이 있는 분들과 연결이 되었고, 그분들이 기꺼이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가장 귀한 것들은 홍범도 장군의 친필편지들인데 그 편지들에서는 홍 장군의 투박하고 거침없는 육성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셨던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그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낸 것이며, 가끔은 홍범도 장군의 옛 부하였던 노인들의 증언기록들을 활용했다.

〉 홍범도라는 한 영웅적 의병장의 생애를 통해 새롭게 정리된 한국현대사의 재구성이라고 하셨는데 한국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단적으로 말해 역사서술 방식 자체가 아직도 분단체제의 모순구조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역사 서술은 어디까지나 불편부당不偏不黨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사 서술방식에는 과거 식민지관 학자들의 서술 행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념성에 의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제약이 여전히 작용함으로써 역사서술의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 이를테면, 일본군에 의한 간도지역 한국인 주민학살인 경신년대참변(간도학살)에 대하여 한국사서술에서는 너무도 무성의하게 방치하고 있다. 러시아의 스보보드니에서 일어났던 흑하사변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역사서가 가볍게 다루거나 아예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흔하다. 친일파가 독립투사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이를 통해서 절감하는 것은 한국사서술의 논의를 다시금 진지하게 시작하여 어린 후세들이 제대로 된 민족사를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겠다는 생각이다.

〉 어떻게 보면 역사가가 해야 할 일을 시인인 선생께서 하셨다. 역사가가 되살린 홍범도와 시인이 되살린 홍범도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역사가가 해야 할 몫과 문학인이 해야 할 몫은 따로 있다고 본다. 하지만 두 역할이 추구하는 작업에서 상당히 유사한 일치를 발견할 때도 많다. 민족서사시 〈홍범도〉는 역사성과 문학성을 조화롭게 일치시키려는 갈망을 품고 있다. 문학성 속에서 홍범도 장군은 풍부한 상상력과 생기로운 현장감 속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미 기록된 사실이나 존재하는 사실을 문학작품은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복원시키고, 현실 속에 접맥시키려는 시도를 한다.

〉 이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것과 21세기 대한민국에 홍범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굴의 투지와 적극성일 것이다. 요즘 세대들은 어떤 험한 역경이나 악조건을 만났을 때 쉽게 지치거나 굴복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가열찬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결코 패배주의나 허무주의로 빠지지 말아라, 퇴폐주의나 냉소적 삶의 태도는 더더욱 위험한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일깨워준다.

아무리 21세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문제와 그 영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성이 담보되어 있다. 젊은 세대들도 민족적 자기정체성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차츰 얻어가고 있다. 문학사에서의 근대성 문제와 논의만 하더라도 20세기 전체를 통하여 근대성 문제는 결코 해결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새로운 세기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21세기 초반에도 20세기의 근대성 논의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결 대상이자 지속적 화두이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 수많은 민중적 영웅상에 대한 자료조사와 발굴작업은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중요과제다.

〉 큰 작업을 끝내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국문학자로서 본인의 작업은 우리 문학사가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아서 원래의 제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다. 즉 월북, 혹은 재북문학인들의 관련자료를 모두 모아서 전집을 꾸준히 발간하는 사업이다. 이것을 국문학자로서의 필생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다. 창작인으로서의 역할은 민족서사시 〈홍범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실의 표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소외된 사물들, 인물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창조적 상상력을 부여하고, 보다 값진 민족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다시 부활시키는 시적 작업들을 계속해 갈 계획이다. 그것이 내 문학의 영원한 화두이자 목표이다.

취재 신동섭 기자